

## 독 루프트한자, 세계 항공사와 제휴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 타이항공, 에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의 SAS와 협력 협정인 「스타얼라이언스」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의 바리그항공도 오는 10월 이 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다.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공동신호체계를 사용하고 런던에 판매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루프트한자는 「동맹발전위원회」가 동맹의 활동을 조정하게되며 “각 회원사는 업체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원 안에 5개의 작은 피라미드가 들어있는 로고를 공동 사용하게 된다

## 제주 공항화물터미널 크게 확장

제주공항 화물터미널 신축공사가 이달말 착공돼 날로 증가하는 항공화물 처리난이 99년 10월부터 풀리게 됐다.

공항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공항 항공화물이 날로 증가, 처리난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99년 9월까지 사업비 430억원

을 집중 투자해 새로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항공단은 현 화물터미널 동쪽에 1만7,000여㎡의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고 항공기 계류장 6만8,000㎡를 확장하는 한편 길이 1,014m 폭 30m의 유도도로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27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2만2,000㎡ 규모의 주차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신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화물처리능력이 현재 연간 21만톤에서 58만톤으로 2.8배가량 늘어나고 항공기 주기능력도 14대에서 16대로 확대된다. 공항공단 제주지사는 27일 도민사업설명회를 연 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 대구에 중형기 취항... A300, B767 등

만성적으로 항공편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온 대구공항에 지난 5월 30일부터 2백90석 규모의 여객기가 투입됐다.

건설교통부는 활주로 착륙지점 보강공사가 끝남에 따라 주말에 A300, B767 등 중형기 4편을 증편하고, 주중에는 소형기 4편을 중형기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구간에는 매일 15회씩 항공기가 운항중이었으나 운항기종이 모두 소형기여서 탑승난이 심

각한 실정이었다.

이번 중형기 증편 및 대체 운항으로 서울~대구간은 좌석수가 주당 1천5백60석 늘어나 1만8천7백석을 공급할 수 있게됐다.

## 日 항공규제 완화

일본의 운수성은 하나의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앤 후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항공 요금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수성의 지문팀은 국내 항공 요금에 적용하는 수요-공급 조정 방식을 없애고 이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조정된 범위 내에서 25%까지 요금을 인상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NA(All Nippon Airways)의 부회장 코지 야마시타는 일본은 항공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최저요금(25%) 제한의 철폐로써 더욱 값싼 할인 요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사들은 최고 가격 제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블 트랙(double track: 한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경합하기)

이나 트리플(triple) 트랙 시스템의 종식과 더불어 항공 요금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일본의 다른 장거리 비경제적인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NA는 동 항공사가 100개 국내 노선에서 운항하는 하루 500회 운항중 약 2/3가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 국내 항공사들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유지가 어려운 노선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ANA는 동사가 수익이 없는 노선을 운항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보조금이 가장 핵심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분석가들은 더블 트랙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공항 수용능력이 확장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8천만명의 일본 국내선 이용자들 중 60%는 도쿄의 허네다 공항을 통하게 되는데, 이미 최대 수용

능력에 도달한 상태이다. 수용능력을 증가시킬 제3 활주로는 9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 SilkAir 에어버스기 선정

싱가포르의 항공사 실크에어(SilkAir)는 동사의 보잉 737-300과 포커 70 쌍발제트기를 교체하기 위한 단일통로기에 에어버스의 A319/320 패밀리를 선정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SIA) 소유의 지역 항공사는 3개월간의 검토와 협상 끝에 보잉의 차세대 737-600/700/800 대신에 A319/320을 선택하게 되었다. 동 항공사는 초기에 이미 맥도널더글라스의 MD-90-30과 MD-95를 경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동사는 A319와 320을 혼합하여 총 8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6대의 737-300과 임대된 2대의 포커 70을 교체하기 위해 98년 말

에 첫 항공기를 인도 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보다 큰 A321 기종이 포함된 최소 4대의 옵션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크에어의 결정에서는 항공기의 운항거리와 탑승용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동사는 현재 4시간인 항속시간(endurance)을 60-120분 더 늘림으로써 아시아에서 새로운 장거리 노선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노선에서 탑승객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탄력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엔진 선정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SIA의 A319에 탑재된 CFM56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는 CFM 인터내셔널의 CFM56-5 엔진과, 준 합작사업체인 싱가포르 에어크래프트 리싱(SALE)사의 A320/321의 엔진과 유사한 인터내셔널 에어로 엔진(IAE)의 V2500-A5 엔진이 경쟁중이다.

### 기다립니다

월간 항공우주는 항공우주  
위한 정보전달과 우리의  
제시하기 위해 본  
정부의 산업정책  
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지자에게  
(전화. 761-1104 운병한대리)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는 항공우주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  
우편료 정돈의  
을 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담당 김 미정  
전화. 761-1101  
FAX. 761-1175